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에 소매를 걷으세요' 캠페인의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자격 대상인 16세 이상 뉴욕 주민들에게 4월 6일 화요일부터 접종을 예약할 것을 권고

주지사, '소매를 걷으세요'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뉴욕 주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

주 전역의 광고는 4월 7일 시작

16세 이상의 뉴욕 주민들은 4월 6일부터 예약 일정을 잡고 예방 접종 가능

뉴욕주는 접종 자격 요건을 Biden 대통령이 발표한 5월 1일 기한보다 거의 한 달 더 일찍 보편화할 계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뉴욕 주민들, 특히 코로나19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주 전역에 걸친 "소매를 걷으세요(Roll Up Your Sleeve)" 광고 캠페인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광고는 4월 7일부터 텔레비전과 온라인을 통해 주 전체에 방영됩니다. 이 광고는 Contagion의 각본 작가인 Scott Burns가 연출했으며, 뉴욕시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메일만 공중 보건 학교(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백신 자격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자격이 발표되고 16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들이 4월 6일부터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Biden 대통령의 각 주의 보편적 자격 제정 시한인 5월 1일보다 거의 한 달 앞당겨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은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4월 6일부터 16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의 중요한 단계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바이러스에 의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지역사회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소매를 걷으세요' 캠페인을 통해 어떤 지역사회도 백신 배포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자격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뉴욕 주민들이 우리 백신 접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자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백신 접종 자격 확대가 우리가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진실은 수백만 명의

이웃들이 여전히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감염률과 경주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안전 수칙을 계속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은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와 다수의 접종 대상자를 가지고 있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백신 공급량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뉴욕 주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예약 없이는 백신 접종 장소를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16세와 17세인 주민만 화이자(Pfizer)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웹사이트에서 정부 운영 대규모 백신 접종소의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 주민들은 현지 보건소, 약국, 의사 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백신이 준비된 경우 예약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